

첫 여성 인수위원장 이경숙

대학개혁 이끈 'CEO형 총장'

첫 직선제 4연임 총장...李당선자와 같은 교회 친분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이경숙(李慶淑·64) 숙명여대 총장이 나졌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선대위원장에게 영입하려고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했을 정도로 평소 호감을 가졌던 인물. 이 당선자는 이번에도 일찌감치 이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찍어 보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위원장이 이 당선자의 국정운영 방향인 'CEO(최고경영자)형 대통령', '실용정부'의 구상을 잘 구현할 책임자인데 교육계, 여성계 인사로서 업무능력과 개혁성, 참신성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4년간 숙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CEO형 총장'의 전형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제16대 총장으로 재선출됨으로써 직선제로 4년 연임되는 국내 첫 총장이자 최장수 여성 총장의 기록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드럽지만 매서운' 추진력으로 총장 취임 이듬해인 1995년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 학교발전 기금 1천억원 모금을 공약해 계교

100주년인 2006년 이를 달성했다. 모금운동을 처음 추진할 당시 교내에서 '학교를 망하게 할 총장이 들어왔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한 번 더내기 운동'이란 기발한 아이디어로 첫날 행사에서 62억원의 약정기부금을 모은 대성공을 거뒀다. 총장 취임 이후 캠퍼스 부지가 2배, 교사 연면적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캠퍼스내 21개의 건물이 새로 생겼고 재학생, 전임교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학교 100년 역사 중 가장 빠른 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에게 더 친숙한 별칭은 '출추는 총장님'이다. 해마다 모금행사나 교내 축제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 '댄스'를 선보이면서 붙은 별명. 이 위원장 덕분에 '정숙한 이미지'로 알려진 숙대 분위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학' 바뀌었다는 인권의 평을 받는다. 그는 또 방송위원회 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제2의건국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외교통일부 자문위원, 국회제도개선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 등 학교 담

장을 넘어 다양한 사회경력을 쌓아온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19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의 통치권 확립을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의원 출신이고 이후 81년 제11대 민정당 전국구 의원을 지냈다는 점은 군부독재의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협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이 총장은 이 당선자가 다니는 교회인 신사동 소망교회의 권사로서 평소 이 당선자와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는 전언이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이 총장에게 교육정책 관련 자문과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다. 194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숙대 정의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76년 모교로 돌아와 강단에 섰고, 이후 정법대학장, 기획처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숙대 수석입학, 수석졸업 및 국내 여성 정치학 박사 3호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최영상(68)씨와 1남1녀. ▲43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숙대 정의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박사 ▲숙대 교수 ▲숙대 정법대학장 ▲숙대 기획처장 ▲숙대 총장(현) ▲유네스코 석좌교수(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현) /연합뉴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25일 오후 임명소식을 들은뒤 숙대 총장실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李당선자 서울시장 시절부터 자문역 80년 국보위 참여 경력 당내 반대도

■인수위원장 인선 뒷얘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일찌감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낙점해 들 정도로 이경숙 숙대총장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에서는 투표일 이틀 전부터 '이경숙 위원장'설(說)이 흘러나왔고, 이 당선자는 지난 주 당선 후 소장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대학총장이 위원장으로 어퍼나"고 운을 떼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평소 다니던 신사동 소망교회 권사로서 이 위원장과 교우로서 관계를 맺고, 대학개혁에 성공한 'CEO(최고경영자)형 총장'으로서 이 위원장의 개혁성과 업무능력, 참신성을 눈여겨봐 왔다고 한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시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이 위원장에게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과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후인 지난 10월 이 위원장을 중앙선대위원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으나 "2008년 8월까지 총장 임기를 꼭 채우고 싶다"고 고사해 성사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당선자가 중요시하는 정책분야인 교육계 인사인데다 첫 여성 인수위원장이자 상정성도 여

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공약과 맞물려 낙점을 받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을 최종 발탁하기까지 당내 반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19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의 통치권 확립을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의원 출신이라는 전례 때문에 자칫 첫 인사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 게다가 비정치인보다는 정치인이 인수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당선자는 23일 이명호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하고 24일에도 이재오 의원과 독대하는 등 '인회의' 멤버들과도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 구성 전반에 관한 의견을 두루 나눴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실무진들은 며칠 전부터 이 위원장에게 의사를 타진했고 이 당선자측은 23일경 사실상 '이경숙 내정'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2008년 8월까지 총장 임기를 꼭 채우고 싶다"고 고사해 성사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당선자가 중요시하는 정책분야인 교육계 인사인데다 첫 여성 인수위원장이자 상정성도 여



언론인 출신 4선 중진의원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경숙 인수위원장과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부산 영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뒤 줄곧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에서 활약. 국회내 대표적인 '정보과학통'으로 꼽힌다. 부인 지인경(54)씨와 2녀. ▲부산(60) ▲서울대 외교학과 ▲동아일보기자 ▲대통령 정부비서관 ▲신한국당 기초위원장 ▲국회 과기정위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

당내 요직 두루 거친 재선

임태희 당선자 비서실장



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에는 비서실장을 맡아 실무형 참모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7대 국회 들어서는 공동대변인, 원내 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권혜정(46)씨와 사이에 2녀. ▲경기 성남(51)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4회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비서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대표 비서실장 ▲대변인 ▲원내 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16, 17대 의원

판사 출신... 불교계 인맥 탄탄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



인맥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이 당선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리적 언변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지난 2003년 19년간의 판사 생활을 접고 정계에 입문했다. ▲대구(48) ▲영남대 법학과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17대 국회의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

정치부 기자·특파원 출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정치권에 안착했다는 평을 받는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거쳐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으며, 정치부장 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창기 멤버로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부인 김현경씨(43)와 1남2녀. ▲서울(50) ▲서울대 정치학과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동아일보 정치부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